

발간사



정선군의 석탄산업사는 한국의 석탄산업사입니다.

우리 정선군은 석탄 부존 면적에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정선탄전과 전국 제일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삼척탄전을 거느리고 있는 명실공히 한국의 석탄산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한 부존 자원인 석탄 생산량이 한 때 연간 680 만톤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0%를 공급한 전국 제일의 산탄지로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선에서 무연탄이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는 해방 후 석탄 생산 부진으로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무연탄의 안정 공급을 위하여 「함백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1948년 2월부터 국영기업으로서 정부가 광업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현재 신동읍에 위치한 함백에서 석탄 개발에 착수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1961년도에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1962년도에 설립된 9개의 대단위 민영탄좌중에서 우리 정선군에 전국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와 삼척탄좌를 비롯하여 회동탄좌, 우전탄좌 및 나전탄좌가 동지를 트는 등 정선군 전체가 석탄의 보고였습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가 운영되어 국영탄광과 민영탄광이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수많은 중소탄광들도 우리 군 곳곳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정선에서 생산한 석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미줄처럼 이어진 산업철도와 도로를 따라 전국 각지로 실어 나랐습니다. 1957년에 석탄수송을 위한 산업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영월-함백 구간의 함백선이 개통되었으며 1967년에는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태백선의 증산역과 정선군 북면 구절리를 잇는 46km에 달하는 정선선을 부설하는 등 다수의 산업철도는 정선 일대의 대규모 탄광의 개발뿐만 아니라 정선군의 교통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무연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 이후 연탄소비가 급감하자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우리 군내 대부분의 탄광들이 폐광이 되었고 이로 인해 1970년대 14만 여명에 달했던 우리 군의 인구가 급감하고 지역경제는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5년 3월 3일에 6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5개항의 「대정부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모태가 되었고 이에 우리 군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정선군 석탄산업사의 발간은 매우 뜻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선군 석탄산업사의 발간은 지난 반세기 이상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군민들의 열을 되살리고 산업역군으로서 온갖 역경을 딛고 군 발전과 함께한 수많은 탄광 종사자들의 발자취를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정선군은 중차대한 시대적 전환기에 보람과 희망을 일구어 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하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등대이자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선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웅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주)동원 사북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정선군은 탄광중심의 도시에서 「고원관광휴양 도시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정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선이 한국 석탄산업의 메카였듯이 21세기는 빼어난 자연과 함께 관광 정선의 상징인 「강원랜드」를 소중한 향토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여 고원관광도시의 메카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선군민과 함께 정선군 발전에 기여해주신 수많은 탄광 종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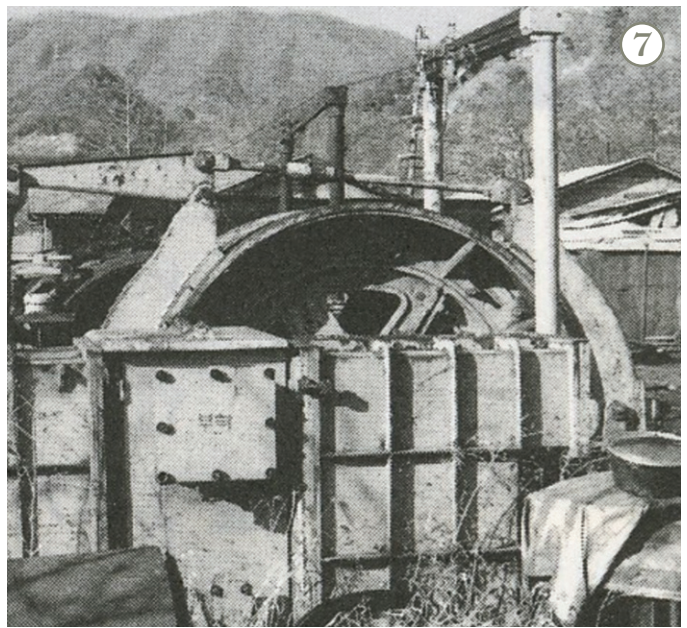
2005. 12

정선군수 김원창



함백은 정선군 석탄개발의 진원지이다. 함백광업소는 1948년부터 상공부 직할로 개발하던중에 한국전쟁과 광업권분쟁으로 1957년 6월 2일에 대한석탄공사 직영 함백광업소로 재개광하였다. 1963년에는 ICA(미국국제원조처) 원조자금으로 새골지역에 2칸짜리 연립5백세대 건립을 계기로 조동리와 방제리는 《함백》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57년 3월 9일에 영월에서 함백까지의 함백선이 개통되면서 함백은 정선군에서 석탄산업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963년도 함백광업소 종업원은 1,894명이며 이중 남성이 1,807명이고 여성이 87명이었다. 이후 석탄산업 활황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1976년에는 4,772가구에 24,669명의 주민이 거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1980년 12월 1일에 신동면에서 신동읍으로 승격되었다.

- ① 함백광업소 단독지구 모습. 함백탄광의 개발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 ② ICA 자금으로 건립된 2칸짜리 연립 5백세대 준공식(1963년)
- ③ 1960~1970년대에 건립된 사택. 1961년 신동면 인구는 17,306명으로 정선군 인구 70,001명의 25%를 차지하였다



함백광업소는 매장량이 2억톤에 달하며 탄질이 양호하다는 미국 경제고문단의 조사보고에 따라 대단위로 이루어진 탄광이다. 1976년에는 73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정선군에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130만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101만톤에 이어 3위이다. 그러나, 누적 적자로 1993년 6월에 9만 2천톤을 생산하면서 폐광하였다. 함백광업소는 1948~1993년까지 총 1,714만톤을 생산하였다. 함백광업소의 최대 인명사고는 1979년 4월 14일 아침 7시 55분께 정선군 신동면 방제1리 함백광업소 자미갱 입구 2m 바깥지점에서 광부전용광차에 싣고 가던 다이너마이트차가 폭발하면서 광차를 타고 갱속으로 들어가던 광부 26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④ 함백광업소 개광식 직후 현관을 거는 모습(1957.6.2)

⑤ 함백광업소 개광식에 참여한 군과편단(1957. 6. 2)

⑥ 함백광업소 중앙부에 위치한 방제갱 입구

⑦ 1993년 6월에 폐광된 이후 방치된 대한석탄공사 직영 함백광업소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

1



3



정선군 북면 북평2리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직영 나전광업소는 1952년도에 처음으로 화성탄광이 10개 광구의 광업권을 설정한 이후에 소규모의 석탄생산을 지속하여 오던중에 1961년 12월 31일에 공포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6월 27일에 <나전탄좌개발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1962년 12월 14일에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광구수는 27개, 면적은 4,839ha(14,637,475평)의 규모로 당시 설립된 9개 탄좌중에서 가장 많은 광구수를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미개발지역인 나전탄좌는 관련 사업이 완공됨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962년 12월 31일에 광업조성자금중에서 시설자금으로 12,068천원과 운영자금으로 2,201천원을 융자받아 본격적인 탐탄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7년 7월 26일에 대한석탄공사가 매입하면서 나전광업소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였다.

- ① 1970년대 정선군 북면 나전전경
- ② 정선군에 회동탄좌, 나전탄좌 및 구절(우전)탄좌 설립을 보도한 신문(1962.6.29)
- ③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 서부전차경 관통 축하(1983.8.25)

羅田鑛業所 승격
石炭공사(李根陽)는 成
白鑛業所 羅田支所를 鑛業所
로 승격, 20일 이전 강원도 旌
善군 北平리 현지에서 개
소식을 가졌다.
石公은 羅田지구를 종합개
박, 연간 10만톤 생산규모의
鑛業所로 육성할 방침이다.



1973년 1월 1일에 나전광업소는 함백광업소 나전지소로 재편되었고 이후 높은 생산원가로 인하여 1973년 5월 31일에 작업 중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1973년도 제1차 국제 석유 위기로 1974년 1월 1일에 재가동되면서 1974년 12월 20일에는 나전광업소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당시 개발 계획으로는 연간 10만톤 생산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손 누적으로 1990년 9월에 9만톤을 생산하면서 폐광을 하였다. 나전광업소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연간 평균 210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대한석탄공사 직영 광업소중에서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나전광업소는 옥갑갱, 북평갱, 가평갱, 궁대갱, 동부전차갱 및 서부전차갱을 운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옥갑갱이 주력 생산갱였다.

④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 본관 건물

⑤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에 가장 규모가 큰 옥갑갱 모습

⑥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의 북평갱 모습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①



②



③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삼척탄전의 서부에 위치하여 동부는 삼척탄좌, 서부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와 접경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상으로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이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인근 고한읍에 위치한 삼척탄좌와 함께 성장한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다. 동원탄좌는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대단위 민영탄좌로 1962년 9월 24일 <원동탄좌>로 설립하고 이듬해인 1963년 12월 1일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동원탄좌는 1,100만평의 대지에 23개 광구를 거느린 총매장량이 8,200만톤에 달하였다. 1982년 9월에 수갱시설공사 착공, CONVEYOR 시설 설치 완료, 1985년 12월 중액선탄시설 완공, 마침내 1988년 1월 수갱시설공사가 완공하였다. 일찌기 기계화된 막장채탄방식으로 혁신하였고 수동운반방식에서 전장 5,600미터의 벨트컨베이어시스템 등 기계화를 이룩한 탄광이다. 동원탄좌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으며 정선군을 석탄밸리(Coal Valley)로 키웠다.

① 정선군 사북읍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전경. 대형 권양기 등 수갱시설을 이용하여 지하 1,200m까지 내려간다

② 전장 5,600m에 달하는 삭도광차 모습 ③ 1974년에 건립한 지장산 광원사택(149동 725세대)으로 현재 강원랜드 메인카지노가 들어서 있다



동원탄좌 사복광업소가 1961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한 총 석탄생산량은 약 5,000만톤에 달하며 이는 매년 116만톤을 생산한 셈이다. 1974년에 107만톤, 10년뒤인 1987년에 200만톤을 생산 돌파하고 1990년에는 205만톤으로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이때 전국 생산량중에서 12%를 차지하였으며 강원도 생산량중에서 17%, 정선군 생산량중에서 43%를 차지하였다. 국영 및 민영을 합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이어 2위이며 민영부문에서는 1위이다. 이에 사복읍이 1973년 7월 1일에 동면 사복출장소에서 읍으로 승격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복읍 인구는 1980년도에 동원탄좌 사복읍광업소 직원 4,440명에 힘입어 51,042명으로 달하여 단일 군으로 전국 최대 탄도(炭都)였다. 정선군이 한국 석탄의 메카로 자리잡게 한 버팀목이었다.

④ 선탄부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선탄부 임금은 전산부의 1/3 수준이하이며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

⑤ 1980년 10월 5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복광업소 650경을 시찰하고 있다

⑥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의 입출강 모습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①



②



1962년 설립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석탄 총매장량이 9,380만톤에 달하며 최초 상업 채광을 시작한 1964년에 12만 7천톤을 생산한 이후 매년 20%내외의 생산 증가를 이룩하여 1975년 100만톤, 10년뒤인 1985년에는 150만톤을 생산하였다. 사북읍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함께 정선군의 최대 민영탄광이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종업원은 1970년에 1,505명에서 1980년에는 3,2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이 고한읍과 사북읍으로 분할되기도 하였다. 1981년 제1수갱 건설에 이어 1984년 제2수갱 및 1989년 5월에 중액선탄장을 건설하여 기계화와 함께 탄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다.

① 정선군 고한읍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모습

② 삼척탄좌는 채탄현대화 일환으로 1974년 착공하여 1981년 5월 21일에 국내 최대 제1수갱을 준공으로 심부탄개발에 본격 돌입하였다. 동 시설은 서독제로 1,800마력 용량이며 연간 1백 30만톤 생산을 25년간 가동할 수 있으며 해발 250m까지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당시 120억원이 투입되었다. 준공식에는 박봉환 동력자원부장관, 이태섭 국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1963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한 총 석탄생산량은 약 3,463만톤이며 이는 매년 91만톤을 생산한 셈이다. 정선군에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5,000만톤에 이어 2위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기계화 채탄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1978년 4월에 탄광의 재해발생 예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독일정부로부터 275만 마르크를 지원 받아 신채탄법인 중단붕락식 채탄법시험 업체로 대성탄좌와 함께 선정되었다. 이 방식은 탄층에 최소량의 갱도를 개설하여 채탄할 수 있어 채수율과 경제성이 높은 채탄법이었다. 1960년대 정암광업소의 채탄은 위경사채탄법(Slant Chute Caving Method)이었다. 이 채탄법은 탄맥의 폭이 1미터 이하이고, 경사가 25도 이상인 단층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③ 야간작업후 출갱하는 삼척탄좌 종업원 모습

④ 동발을 지고 가는 모습. 동발은 갱도 굴진 및 채탄시 붕락 방지 지지대 역할을 한다

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중심지역



1980년대들어 무연탄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석유류와 198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국민소득의 빠른 증가는 에너지수급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시켰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1,645 \$에서 1989년 5,418 \$로 3.3배가 증가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은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무연탄의 소비는 1980년대 후반기들어 연평균 증가율에서 매년 - 2.8%씩 감소한 반면에 가정용 경쟁연료인 LPG는 1980년대 전반기에 26.2%씩, 후반기에도 20.3%씩 증가하여 가정용 연탄 제조용인 무연탄을 급속히 대체하여 나갔다. 특히, 1988년도 서울올림픽은 고급 에너지를 요구하는 기폭제였다. 이에 정부는 1986년에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석탄산업 구조조정 토대를 구축하고 1989년에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피할 수 없는 정부의 고뇌였다.

①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계재한 언론

②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준비사무국 현판식(1986년 9월 25일). 좌측은 동력자원부 이원 국장, 우측은 석탄협회 이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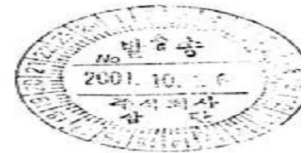


1989년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은 전국 석탄 메카였던 정선군 지역경제를 폐쇄시켰으며 정선군 인구를 1978년에 139,862명에서 1992년에 80,133명으로 급감시켰다. 약 14년동안에 6만여명, 매년 4,3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1995년 초반부터 정선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역경제살리기 및 주민생존권 투쟁이 전개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대정부 합의문 5개항을 이끌어 냈다. 1995년 3.3투쟁은 1995년 12월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정선군 사북읍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박운서 통상산업부장관 등이 서명한 대정부 합의문 5개항은 ① 고원관광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②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조기 지정, ③ 석탄감산속도 조절 및 적정 생산량 유지, ④ 대체산업 창업촉진을 위한 투자비 융자 지원, ⑤ 탄광지역진흥 6개년 사업 보완 및 집중 투자이다.

- ③ 사북읍 인구는 1980년 51,042명에서 2003년 7,158명으로 고한읍인구는 1985년 32,801명에서 2003년 5,913명으로 급감하였다 ④ 사북읍에서 개최된 주민생존권투쟁 모습(1995년 2월말-3월초)

수 신 : 정선군수
참 조 :
제 목 : 폐광통보

2001. 10. .



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1962년 함백산 기슭에서 삼척탄좌라는 상호로 힘차게 출발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날이 발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우연탄 수요감소에 따른 판매의 한계 및 생산작업 환경이 막장 심부화 및 매년 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광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2001년 11월 1일자로 부득이 폐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아무쪼록 지금까지 당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귀 사무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당사가 폐광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식회사 삼탄

정암광업소장 안 현 호



합 의 서

②

(주)동원사북광업소와 (주)동원사북광업소노동조합 및 (주)동원연합노동조합은 회사의 폐광에 따라 다음사항을 합의한다.

다 음

1. 회사는 폐광위로금으로 인당 7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단, 임시부 및 감축지원금을 수령한 종업원은 제외한다.
2. 회사는 사원아파트신축부지로 C지구 5,000평을 2003년도 공시지가로 제공한다.
3. 회사는 재직기간으로 1인기준 금액당 5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단, 임시부 및 감축지원금을 수령한 종업원은 제외한다.
4. 회사는 아파트와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폐광이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단, 수도료, 수리비, 공과금등 유지비는 입주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회사는 중앙난방시설인 아파트에 대하여 2004년 11월말일까지 개별난방으로 교체하여 준다. 그 외 아파트 및 일반주택 거주자에게는 단체형악기준으로 6개월 분의 연탄을 지원한다.
6. 상가 대상자는 2004년 10월 25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7. 폐광위로금 및 금액당은 2004년 12월말에 지급한다.
8. 퇴직금(회사지급분)은 2004년 12월말에 지급한다.
9. 폐광대책비 및 사업단지갈분 퇴직금은 2005년 1월말에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2004년 10월 25 일

(주)동원 사 북 광 업 소 장 한 유 섭

(주)동원노동조합 위 원 장 정 해 릉

(주)동원연합노동조합 위 원 장 정 성 영

합 의 서

③

(주)삼탄 정암광업소와 (주)삼탄 정암광업소 노동조합은 경영여건 악화등 다투고 같이 폐광하기로 합의한다.

- 다 -

1. 2001년 10월 31일자로 작업을 종료한다.
2. 회사는 폐광위로금으로 인당 400만원을 광업소에 속한 전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3. 회사는 재직기간으로 금액당(5돈)을 10월 31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4. 회사는 아파트와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폐광이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만, 전기, 수도료, 수리비 및 공과금등 일체의 유지비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으로한다.
5. 회사는 폐광시 까지 조합원의 기본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6. 지급시기
 - ① 폐광위로금은 2001년 11월 25일에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정산이 끝난후 1주일 이내에 회사지급분을 지급하고, 사업단 지급분은 1월말에 지급되도록 한다.
 - ③ 폐광대책비는 2002년 1월말에 지급되도록 한다.

2001. 10. .

(주) 삼 탄 정 암 광 업 소 소 장 안 현 호

(주) 삼 탄 정 암 광 업 소 노동조합 위 원 장 정 해 릉

정선군을 전국 제일의 석탄 메카로 키워온 고함읍 소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2001년도 10월에 폐광을 하였고 사북읍 소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2004년 10월에 폐광을 단행하였다. 양 대 민영탄좌는 약 반세기에 걸쳐 정선군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해당 탄광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변혁시켰다. 정선군내 탄광근로자는 1986년에 16,641명을 기록하여 당시 정선군 인구 128,968명의 13%를 차지하였으며 가족을 합하면 30%내외에 달하였다. 정선군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것이었다. 정선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중추적 연료공급기지였던 것이다.

- ① (주)삼탄(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장이 정선군수에게 송부한 폐광통보(2001년 10월)
- ② (주)동원(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노사합의서(2004년 10월 25일)
- ③ (주)삼탄과 노동조합간 폐광에 따른 노사합의서(2001년 10월)

기 대 와 시 림



1948년부터 2004년까지 반세기이상 한국의 석탄밸리를 형성하였던 탄도(Coal Town)가 변신을 위한 용틀음을 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메카가 고원관광메카로 변신을 한다. 석탄시대에는 광부와 지역주민이 한 몸이었으나 카지노시대는 겹블러와 지역주민은 한 몸이 아니다. 광부사택이 호텔로 바뀌고 석탄광구가 골프장으로 바뀌고 석탄막장은 게임장으로 바뀐다. 《특별법》을 만든 지역주민이 한국의 석탄메카를 세계의 관광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탄도(炭都)가 20세기말 시대적 전환기에 보람과 희망을 일구었듯이 21세기에는 고원관광도시로 도전과 용비를 하여야 한다. 저 멀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수갱이 땅의 상징이었듯이 더 멀리 지장산 광부사택 너머로 입성할 (주)강원랜드를 소중한 향토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 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인근이 강원랜드 리조트 편입부지임을 알리는 게시판
- ② 탄광 종업원의 폐광에 대한 시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특별법 제정과
관광메카로의 도전

①



②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정선군의회 의정활동(1995년-1996년)

■ 1995.7.25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참석(에너지경제연구원), ■ 1995.9.12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원안통과 촉구대책 회의개최(의회), ■ 1995.9.15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안 원안통과촉구 성명서발표, ■ 1995.10.2 폐광지역 주민대표자 회의참석(고한읍), ■ 1995.10.14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관련 회의참석(태백시), ■ 1995.10.17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원안통과 건의 관련부처방문(국무총리실/국회/통상산업부/문화체육부), ■ 1995.10.14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안 원안통과촉구 차량시위, ■ 1996.1.30 폐광지역 개발관련 회의참석(서울 석탄회관), ■ 1996.3.22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주민의견수렴촉구 성명서, ■ 1996.3.27 폐광지역개발지원 관련사업 건의 중앙부처 방문(통상산업부/석탄관리화사업단), ■ 1996.3.29 개축지구 지정및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관련 설명회참석(정선군청 소회의실), ■ 1996.4.17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관련 설명회참석(정선읍회의실)

① (가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제정 공청회 모습. 에너지경제연구원 지하강당(1995년 7월 25일)

② 강원랜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임시 사무실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석탄회관에 자리 잡았다(1998년 7월 23일)



■ 1995년 12월_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 1996년 4월_탄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 1996년 8월_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정 고시(통상산업부), ■ 1997년 2월_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정 고시(강원도), ■ 1997년 4월_카지노사업 기본계획 마련, ■ 1997년 8월_카지노사업 대상지역 지정(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지구), ■ 1998년 6월_(주)강원랜드 설립, ■ 1998년 10월_카지노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1999년 5월_실시계획승인(정선군고시 제1999-38호), ■ 1999년 7월_민간부문 주식공모, ■ 1999년 9월_스몰카지노 호텔 착공, ■ 2000년 6월_메인카지노 착공, ■ 2000년 10월 28일_스몰카지노 개장(첫날 5,000명 몰려), ■ 2000년_카지노매출액 8백8십억원 달성(연간방문객: 21만명, 하루: 3,200명, 개장일: 65일), ■ 2001년 7월_메인카지노 상량식, ■ 2001년 11월_방문객 100만명 돌파, ■ 2001년_카지노매출액 4천5백억원 달성(연간방문객 90만명, 하루: 2,465명, 개장일: 365일)

- ①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건설 기초공사 모습. 메인카지노는 옛 동원탄광 사복광업소의 지장산사택 자리에 터를 잡았다
 ②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건물 골조공사 ③ 메인카지노 건물 상량식 모습(2001년 7월)



■ 2002년 12월 방문객 200만명 돌파, ■ 2002년 카지노매출액 4천7백억원 달성(연간방문객 92만명, 하루: 2,517명, 개장일:365일), ■ 2003년 4월 메인카지노 개장, ■ 2003년 7월 강원랜드복지재단 설립, ■ 2003년 8월 방문객 300만명 돌파, ■ 2003년 8월 월매출액 800억 돌파, ■ 2003년 9월 강원랜드 증권거래소 상장, ■ 2003년 10월 강원랜드 복지재단 창립, ■ 2003년 12월 국내 최대 강원랜드 스키장 착공, ■ 2003년 카지노매출액 6천6백억원 달성(연간방문객 150만명, 하루: 4,249명, 개장일:364일), ■ 2004년 10월 방문객 500만명 돌파, ■ 2004년 카지노매출액 7천6백억원 달성(연간방문객 180만명, 하루: 4,890명, 개장일:365일), ■ 2005년 7월 강원랜드 골프장 오픈, ■ 2006년 12월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예정)

① 정선군 사북읍 지장산에 위치한 메인카지노 건물. 메인카지노는 2003년 4월에 개장하였다. ② 정선군 고한읍에 자리한 강원랜드 골프텔은 197개 객실로 골프와 숙박을 같이할 수 있다. 이전에 스몰카지노로 개장하였으나 메인카지노가 완공되면서 변경되었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건물



석탄철도위의 철도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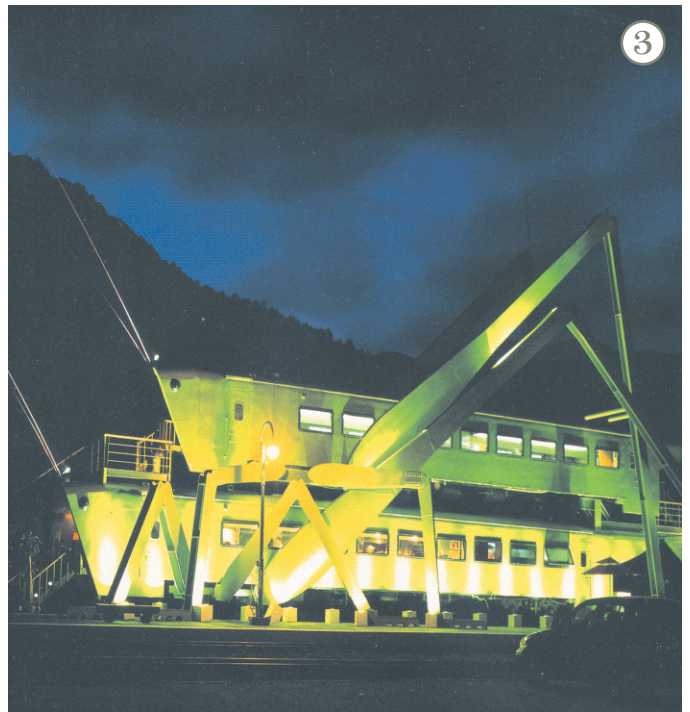
1



2



3



1957년에 석탄수송을 위한 영월-함백간의 함백선이 개통되었고 1967년에는 태백선의 증산역과 정선군 북면 구절리를 잇는 46km에 달하는 정선선이 부설되었으며 1975년 1월 24일에 정선선 구절리 역사가 준공되었다. 정선은 국내 석탄생산량이 한 때 연간 680 만톤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0%를 공급한 전국 제일의 산탄지였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정선선 일부인 구절리역~아우라지역(7.2km)이 철길자전거(레일바이크: 약 50분 소요)로 전환되어 관광정선을 꿈꾼다. 레일바이크(RAILBIKE)는 철로를 따라 4륜자전거로 2명이상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페달은 앞에서 2명이 밟고 나머지 2명은 뒤에 탑승한다. 속도는 시속 10km 이내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다. 구절리와 아우라지 절경을 보며 가리왕산 휴양지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운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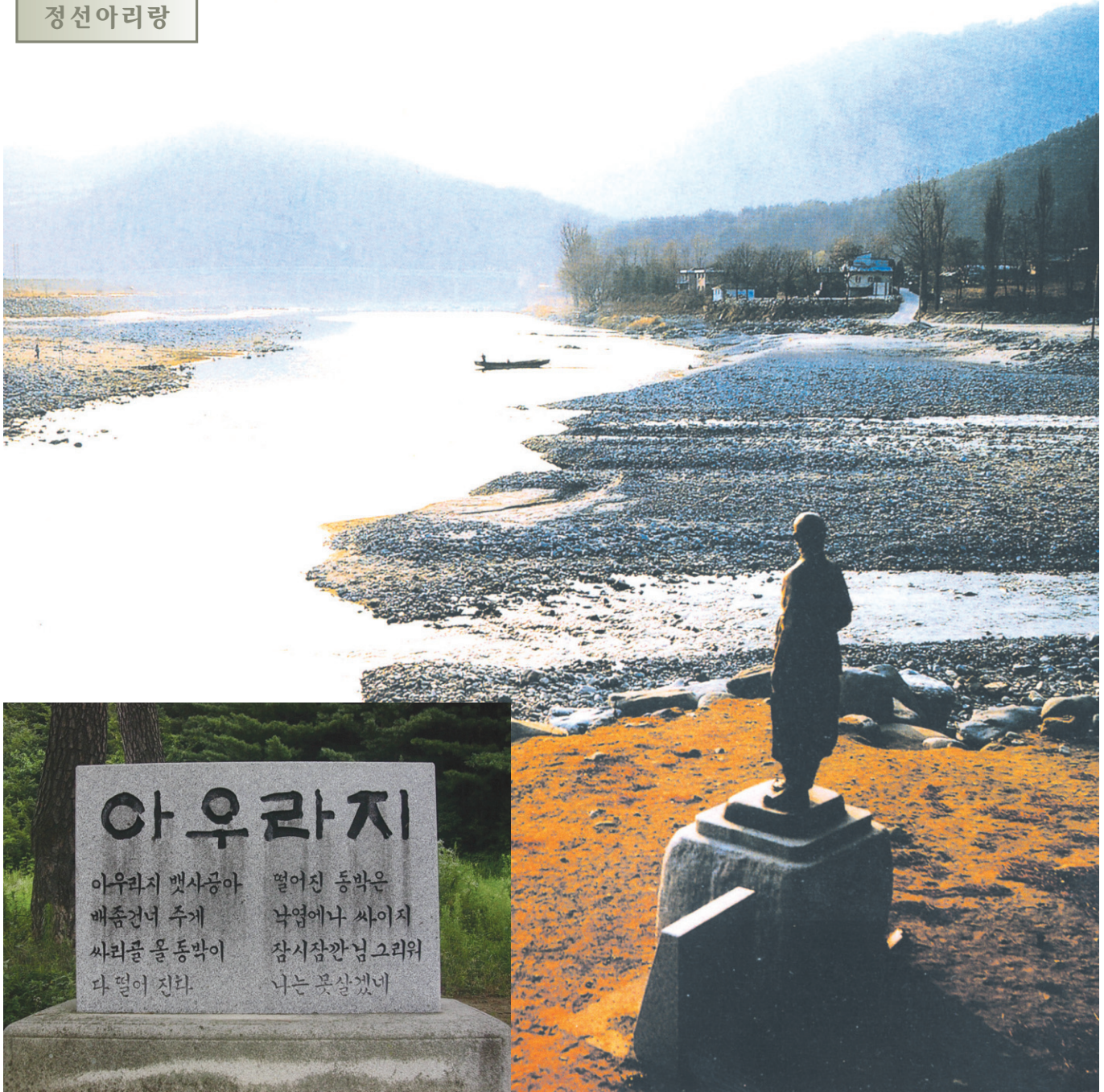
- ① 석탄철도위로 꿈을 안고 달리는 정선 철길자전거의 힘찬 질주(구절리역~아우라지역 7.2km, 50분 소요)
- ② 현재 50대가 운행중인 레일바이크의 긴 행렬. 요금은 2인승 1만 5천원이고 4인승은 2만원이다
- ③ 폐객차를 이용해 제작한 구절리역의 카페테리아 <<여치의 꿈>>



강원도 정선군의 <정선5일장>, 국내에서 보기드문 <오지 장터>로 도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30여년 이상 옛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현지 향토 생산물을 값싸게 구입 할 수 있다. 특히 정선군엔 국내서 유일하게 비둘기호 열차가 운행되어 장터도 들르고 열차도 타보는 <추억의 여행> 코스도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 정선장터에는 정선허토음식(메밀묵, 메일부침, 콩깍이, 옥수수술, 황기술, 콧등치기, 감자송편(떡), 민물고기튀김, 마른산나물 등)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산나물 및 약초 등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정선5일장 열차는 1999년 3월 17일에 최초로 운행되었으며, 정선5일장 개최기간중에 하루 한차례 운행되며 아침 8시 10분에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12시 37분에 정선역에 도착하는 일일 관광 상품이다.

• 위치_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봉양리, • 정선5일장 열리는 날_매 2일,7일,12일,17일,22일,27일, • 정선역→정선장터:1.3km(도보 15분, 시내버스:900원, 택시 기본요금 구간:1,500원), • 정선역→약초시장:1.2km, • 정선장터→약초시장:1.1Km

아우라지와 정선아리랑



〈아우라지〉는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강의 본류를 이루는 곳이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는 뜻으로서 두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강을 이루는 데에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 유적지로 유명한데, 〈아우라지〉에는 여량이라는 동네가 자리잡고 있고 산 많은 정선에서 평평한 너른 들이 있어 식량이 남아돈다 하니 이름이 여량(餘糧)이다. 이곳 여량의 강가에서 건너편에 아우라지처녀상과 아우라지비, 그리고 정자가 있다. 아우라지비에는 가장 유명한 정선아리랑 가사가 실려 있는데 아우라지 사이에 양쪽 마을(여량과 가구미)에 살던 처녀·총각이 사랑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싸리골로 동백을 따러가기로 약속했으나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데에서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좁 건네 주게 /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싸이지 / 잠시 잠깐 님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라는 가사가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우라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이기도 하다. 오래전 남한강 상류인 〈아우라지〉에서 물길따라 목재를 한양으로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터 각지에서 모여든 뗏사공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으로 정선아리랑의 가사 유래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선관광안내도

Tourist Map of JeongSeon

